

# 49 돌아온 탕자

## Chapter

눅 15:11~32

찬송가 315장 (돌아와 돌아와), 찬양 35장 (너는 내 아들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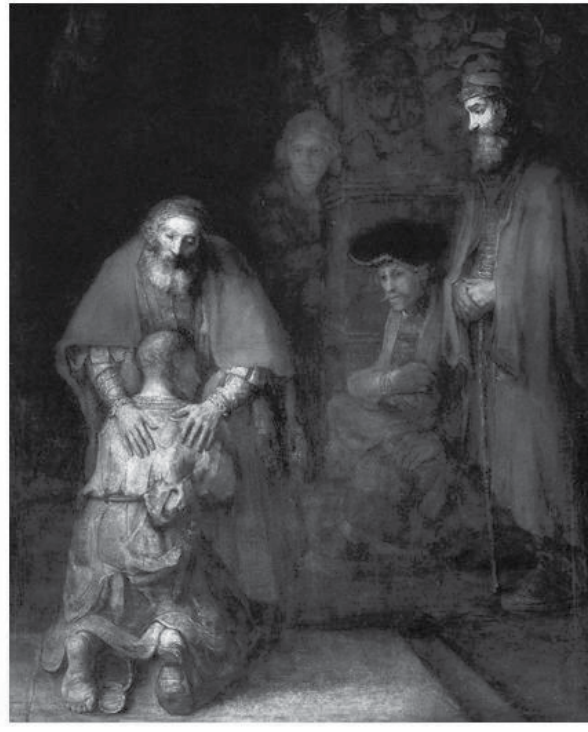
### 오늘 배울



### 말씀

1. 참된 회개의 의미와 그 축복을 압니다.
2.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마땅히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죄인을 대해야 함을 압니다.

### 마음 열기



위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의 인생 말년에 그린 걸작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림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탕자의 형은 누구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말씀을 이해하기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집을 나간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저주를 허락하심으로 죄를 떠난 인간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돼지와 함께 누웠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실제로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죄인 역시 더러운 죄악 속에서 소망 없이 죽어 가기보다는 그 죄악의 삶을 버리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하루가 천 년 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 안아주시고, 겹옷을 입히시며,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회개를 환영하실 뿐 아니라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써 받아주십니다. 죄인의 지난 허물과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크나큰 사랑을 깨달은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 공과말씀정리

##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 55:7)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mercy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Is 55:7)



##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렘 4:1~4)

(겔 18:21~23, 32)

(호 6:1~3)



##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누가복음 15장 25~32절까지를 읽고 다음에 답해 보세요.

1. 탕자를 맞이하는 만아들의 반응과 아버지와 종들의 반응을 비교해서 요약해 보세요.

① 아버지와 종들의 반응(20~24절) :

② 만아들의 반응(28~30절) :

2. 종까지도 아버지와 함께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면,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이자 돌아온 둘째 아들의 친형인 만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했을까요?

3. 만아들이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그가 어떤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29절과 30절을 읽고 정리해 봅시다.

①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 ),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

② 동생은 아버지의 ( )을 다 허비한 죄인이니, 그를 영접해서는 안 된다.

4.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당시 종교인에게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부당한 것으로까지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느라 복음을 배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5. 교회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이 생길 때, 그들보다 먼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들을 맞이해야 할까요?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진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구원받은 형제자매에게 더욱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갈 것을 결심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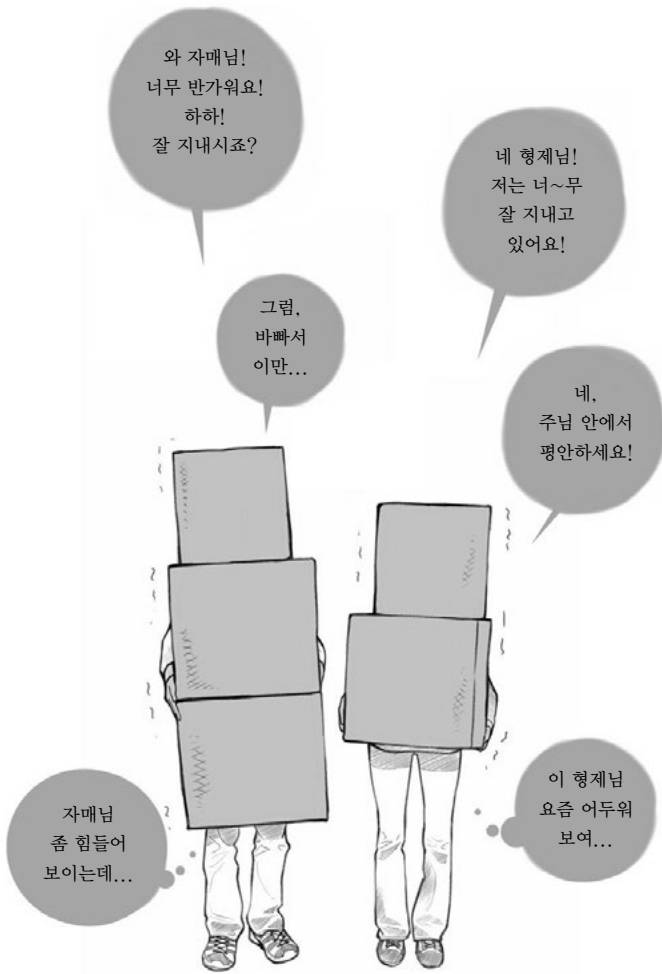
# 우리들의 이야기

## 죄의 특징-짐(무겁다)



###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  
하리라 하였느니라 (롬 14:10~11)



## 버리지 못한 생활 속의 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 12:1)



## 행동 없이 쌓여가는 생각의 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후 10:5)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 38:3~4)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렐 5:25)

## 한밤 중에도 잠들지 못하는 아버지

영국 어느 시골의 한 가정에서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소녀는 도시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자 소녀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을 멀리서나마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이지만 정원에는 자신이 가꾸던 장미꽃도 보이고, 어릴 때 뛰어놀던 잔디밭도 보였습니다. 자기 집 가까이 가보니 자신이 놀던 담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문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운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음성으로 “아버지!”하고 나지막하게 불러 보았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녀에게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으며 기쁘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디에 있다가 이제 오느냐? 우리는 네가 집을 나간 뒤 한 번도 대문을 달아 본 적이 없었단다. 언젠가는 반드시 네가 돌아올 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otted lines.